

『金匱要略心典』百合病 조문에 대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仙蘭 · 李容範*

A Study on Baihe Disease(百合病) Texts in 『The Essence of the Synopsis of the Golden Chamber(金匱要略心典)』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Li, Xian-Lan · Lee, Yong-Bum

『The Essence of the Synopsis of the Golden Chamber(金匱要略心典)』 is an annotated book on the 『Synopsis of the Golden Chamber(金匱要略)』 written by You-Yi(尤怡) of the Qing Dynasty (1729). Chapter 3 of this annotated book contains explanations of Baihe-Disease(百合病).

You-Yi(尤怡) maintained that the cause of Baihe-Disease(百合病) is a deficient-type fever(虛熱) induced by lung-fluid deficiency(肺陰不足). Generally, a higher fever led to a worse prognosis, and this disease was mainly treated by supplement methods(補法).

In his pharmacological explanations, You-Yi(尤怡) often used the analogical inference of the five evolutive phases(五行歸類), and he frequently quoted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黃帝內經)』 and 『The Medical Secret of an Official(外臺秘要)』 to explain the texts.

Key Words: deficient-type fever (虛熱), lung-fluid deficiency (肺陰不足), analogical inference of the five evolutive phases (五行歸類), supplement methods (補法).

I. 서론

『金匱要略心典』은 『金匱要略』의 중요한 注釋書중의 하나로서 淸代의 尤在涇이 저술한 것이다. 그는 宋代 林億 등이 정리한 『金匱要略』 옛 판본에서 雜病方이하 3편을 제외한 22편에 대하여 原文과 注釋을

수록하고 모두 3권으로 만들었다.

『金匱要略』의 제 3篇에는 百合病 狐惑病 陰陽毒 등 3개의 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百合病관련 조문은 모두 9개로 백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병명의 유래, 병의 원인, 치법, 예후 등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金匱要略心典』의 백합병관련 조문을 번역하고, 특히 병명의 유래, 병인, 치법, 예후 등의 내용에 주의하면서, 다른 중요 주석가의 견해와 비교

* 교신저자: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730-0668, ybl@mail.sangji.ac.kr

함으로써, 百合病에 대한 尤在涇 注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翻譯에 사용된 저본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출판된 『尤在涇醫學全書』에 수록된 『金匱要略心典』¹⁾이다. 다만 원문을 기록할 때 原書에 簡體字로 되어 있는 것을 繁體字로 바꾸었다.

2) 大星文化社에서 출판한 趙開美本『仲景全書』를 校勘本으로 하여 校勘을 달았고, 저본의 각주는 내용에 따라 校勘과 注解에 넣었다.

4) 각 조문에 필요한 부분에는 按을 달아 여러 주석서들의 내용과 비교고찰하고 다른 주석가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밝혔다.

5) 句讀는 저본을 따랐으나 일부 고친 곳도 있으며, 번역은 逐字翻譯을 위주로 하였으나 내용 전달의 편의상 보충어를 삽입한 곳도 있다.

III. 본 론

[原文]

論曰：百合病者，百脈一宗，悉致其病也。意欲食復不能食，常默然，欲臥不能臥，欲行不能行，飲食或有美時，或有不用聞食臭時，如寒無寒，如熱無熱，口苦，小便赤，諸藥不能治，得藥則劇吐利，如有神靈者，身形如和，其脈微數。每溺時頭痛者，六十日乃愈；若溺時頭不痛，漸漸然者，四十日愈；若溺快然，但頭眩者，二十日愈。其證或未病而豫見，或病四五日而出，或二十日，或一月微見者，各隨證治之。

[解釋]

論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百合病은 온 몸의 맥이 한 갈래여서 모두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나 먹을 수 없으며, 항상 말이 없고,

누우려 하나 누울 수 없으며, 걷고자 하나 걸을 수 없으며,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음식냄새를 맡기 싫어하며, 추운 것 같으면서도 춥지 않고 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열이 없으며, 입맛이 쓰고 소변 색깔이 붉은데,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약을 복용하면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를 하여, 귀신에 씌운 것 같은 것으로 몸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맥은 微數하다. 소변을 눌 때 마다 머리가 아픈 것은 60일이 지나야 낫는다. 만약 소변을 눌 때에 머리는 아프지 않고 오싹하기만 하다면 40일이 지나야 낫는다. 만일 소변은 시원히 나오지만 머리가 어지러운 것은 20일이 지나야 낫는다. 이러한 증후가 혹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병이 난지 4-5일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병이 든지 20일이나 혹은 한 달이 지나 약간 나타나기도 하는데, 각각 그 나타나는 증후에 따라서 치료하여야 한다.

[注]

百脈一宗者，分之則爲百脈，合之則爲一宗。悉致其病，則無之非病矣。然詳其證，意欲食矣，而復不能食；常默然靜矣，而又躁不得臥；飲食或有時美矣，而復有不用聞食臭時；如有寒如有熱矣，而又不見爲寒不見爲熱；諸藥不能治，得藥則劇吐利矣，而又身形如和。全是恍惚去來，不可爲憑之象。惟口苦，小便赤，脈微數，則其常也。所以者何？熱邪散漫，未統于經，其氣游走無定，故其病亦去來無定。而病之所以爲熱者，則征于脈，見于口與便，有不可掩然者矣。夫膀胱者，太陽之府，其脈上至巔頂，而外行皮膚。溺時頭痛者，太陽乍虛，而熱氣乘之也；漸然快然，則遞減矣。夫乍虛之氣，溺已卽復，而熱淫之氣，得陰乃解。故其甚者，必六十日之久，諸陰盡集，而邪退而愈。其次四十日，又其次二十日，熱差減者，愈差速也。此病多于傷寒熱病前後見之。其未病而預見者，熱氣先動也。其病後四，五日或二十日，或一月見者，遺熱不去也。各隨其證以治，具如下文。

[解釋]

百脈一宗이라는 것은 갈라지면 百脈이 되고 합하면 한 갈래라는 것이다. 모두 그 병에 이른다라는 것을 맥에 병이 없으면 이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08-110.

그 증상을 상세히 보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나 먹을 수 없으며, 항상 말이 없고 조용하나 躁하여 누울 수 없고,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맛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음식냄새를 맡기 싫어할 때가 있으며, 寒이 있는 것 같고 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寒이 나타나거나 열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약이 들어가면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만 몸은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는 듯하다. 모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이라 근거로 삼을 수 없는 象이다. 오직 입이 쓰고 소변색깔이 붉고 맥이 微數한 것만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熱邪는 散漫하여 經에 통솔되지 않으며, 그 氣가 여기저기 떠돌아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병 또한 오고 감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이 열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에서 證驗되고 口, 便에 나타나니, 감출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다. 大抵 膀胱은 太陽之府로서 그 맥은 위로는 머리꼭대기에 이르고 밖으로는 피부를 운행한다. 오줌 늘 때 머리가 아픈 것은 太陽이 잠깐 虛해져 熱氣가 올라탄 것이며, 오싹하면서 오줌이 시원하게 나가면 (열기가) 차츰 감소될 것이다. 잠깐 虛했던 氣는 소변을 다 누면 바로 회복되나 熱淫의 氣는 陰을 얻어야 비로소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심한 자는 6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모든 陰이 모두 모인 이후에 그 邪氣도 물러가서 병이 낫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40일이고 다음은 20일로서 열이 내리면 그 회복도 빨라지게 된다. 이 병은 대부분 傷寒熱病의 前後에서 나타난다. 아직 상한열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백합병의 증후가 미리 나타나는 것은 熱氣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한열병이 생긴지 4, 5일 혹은 20일, 혹은 한 달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은 남은 열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각각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해야 하니, 아래의 문장에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小考】

尤在涇은百合病의 원인에 대하여, 입이 쓰고 소변색깔이 붉고 맥이 微數한 증상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유추하여 熱邪로 보았고, 豫候에 대하

여는 60일, 40일, 20일 등의 치료시간이 걸리는 것을 陰이 모여 熱飲이 풀리는 기간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傷寒熱病의 전후에 이 병이 생기는데, 전에 생기는 것은 熱邪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며, 나중에 생기는 것은 餘熱 때문이라고 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열병이 생기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 그 감정이 오래 쌓여 울결되어 火로 변화하여 음액을 손상한 것²⁾이라고 하였다.

百合病이라는 病名의 由來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百合이百合病을 주로 치료하므로百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尤在涇의 주장과 같이百脈이 모두 병에 걸린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百合이란 房室過度를 뜻하는데, 그 病因에서 病名이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³⁾

【原文】

百合病, 發汗後者, 百合知母湯主之.

【解釋】

百合病에 오치하여 땀을 낸 뒤에는百合知母湯을 쓴다.

【注】

人之有百脈, 猶地之有衆水也, 衆水朝宗于海, 百脈朝宗于肺, 故百脈不可治, 而可治其肺. 百合味甘平微苦, 色白入肺, 治邪氣, 補虛清熱, 故諸方悉以之爲主, 而隨證加藥治之, 用知母者, 以發汗傷津液故也.

【解釋】

사람이百脈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땅에 여러 갈래의 강물이 있는 것과 흡사하여, 여러 갈래의 강물들이 모두 바다로 향하여 모이는 것처럼百脈도肺로

- 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9.
-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119-120. 이운천 외. 금궤요략 백합호흡음양독병증세삼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3). p. 102. 백합이 주약이기 때문에 백합병이라고 명명하였다는 주장은 魏荔澗이 하였고, 합방과 관련이 있어 백합병이라고 명명하였다는 주장은 일본의 飯田鼎이 하였다.

향하여 모인다. 그러므로 모든 脈을 일일이 다 치료할 수는 없어도 肺를 치료할 수는 있는 것이다. 百合은 그 맛이 甘平하고 약간 쓰며 그 색은 흰색으로서 폐로 들어가 사기를 치료하고 補虛清熱한다. 그러므로 여러 처방들은 모두 이것을 주요한 약으로 사용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加減하여 치료한다. 知母를 쓰는 것은 發汗하여 津液을 손상하였기 때문이다.

[小考]

尤在涇은 百合病의 근본원인을 肺의 虛熱로 보았다. 百合病의 病機에 대하여 『金匱要略講義』에서는 ‘心肺陰虛內熱로 인한 질병’이라고 보고 ‘心主血脈하고 폐는 主治節, 朝百脈하여 만약 心肺기능이 정상이면 氣血이 調和되고 百脈이 滋養을 받는데, 만약 心肺의 陰이 虛하여 병이 생기면 百脈이 그 해를 입어 百合病이 생기게 된다’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尤在涇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 또 尤在涇은 백합이 폐로 引經되는 이유를 흰색 때문이라고 하여 五行歸類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조문의 해석에서 이 등⁵⁾은 잘못 發汗시켜 백합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과는 다른 견해를 주장하였다. 뒤의 백합활석대자탕 백합계자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原文]

百合知母湯方

百合七枚^①, 知母三兩^②

上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別以泉水二升, 煎取一升, 去滓; 別以泉水二升, 煎知母取一升; 後合煎取一升五合, 分溫再服.

[校勘]

①百合七枚: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擘’字가 더 있다.

②知母三兩: 趙開美本에는 뒤에 ‘切’字가 더 있다.

[解釋]

백합지모탕방

백합7개, 지모 3냥

위의 약 중에서 먼저 백합을 물에 씻어서 하룻밤 담그면 하얀 거품이 나오는데, 그 물을 버리고, 별도로 썬물 2되에 넣고 달여 1되가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따로 썬물 2되에 지모를 달여 1되를 취하며, 그런 다음 두 개를 합하여 달여 1되 5홉이 되면,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原文]

百合病, 下之後者, 百合滑石大赭湯主之.

[解釋]

백합병에 오치하여 설사시킨 후에는 백합활석대자탕을 쓴다.

[注]

百合病不可下而下之, 必傷其裏, 乃復以滑石, 代赭者, 蓋欲因下藥之勢, 而抑之使下, 導之使出, 亦在下者引而竭之之意也.

[解釋]

백합병은 下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下시키면 기필코 그 裏를 상하게 되니, 이에 다시 滑石, 代赭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下하는 약의 세력을 이용하여 邪氣를 억눌러 下하게 하여, 유도해서 밖으로 熱邪를 배출시키고자 하는 것일 것이니,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熱邪가 이미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끝어서 이를 고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小考]

百合病은 虛와 熱邪로 생긴 병으로서 攻下하지 말아야 하는데, ‘意欲食復不能食’하는 증상을 보고 裏實證으로 잘못 판단하고 攻下시키면 變證이 생기게 된다. 그 變證의 하나는 津液이 消耗되어 內熱이 더 심해져 소변이 短赤하고 澀해지며, 다른 하나는 苦寒한 瀉下劑의 사용으로 胃氣가 상하여 胃氣上逆하여 토하거나 딸꾹질을 하게 되는데, 清潤心肺하는 百合과 清熱利小便하는 滑石, 降逆和胃하는 代赭石으로 養陰清熱, 降逆利尿하면 병이 낫게 된다.⁶⁾

尤在涇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在下者引而竭之’의 조문을 이용하여, 백합활석대자탕을 사용하게

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8.

5) 이운천 외. 금계요약 백합호흡음양동병증제삼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3). p. 105.

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2.

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原文]

百合滑石代赭湯方

百合七枚 擘, 滑石三兩 碎 綿裹, 代赭石 如彈丸大一枚 碎 綿裹

上先煎百合如前法, 別以泉水二升, 煎滑石, 代赭, 取一升, 去滓, 後合和重煎, 取一升五合, 分溫再服.

[解釋]

백합활석대자탕

백합(조갠 것) 7개, 활석(부쉬綿에 싸 것) 3냥, 대자석 彈丸크기로 1개 (부쉬 면에 싸다).

위의 약에서 먼저 백합을 앞에 나온 방법대로 달이고, 샘물 2되로 활석과 대자석을 달여 1되가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하여 잘 섞어 다시 달여 1되 5홉이 되면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두 번에 걸쳐 먹는다.

[原文]

百合病, 吐之後者, 百合鷄子湯主之.

[解釋]

백합병에 오치하여 토하게 한 뒤에는 백합계자탕을 쓴다.

[注]

本草鷄子安五臟, 治熱疾, 吐後臟氣傷而病不去, 用之不特安內, 亦且攘外也.

[解釋]

本草에서鷄子は五臟을 안정시키고 熱性 질병을 고친다고 하였는데, 토한 다음 臟氣가 상하고 병은 제거되지 않은 데에 이를 사용하면 內部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外邪를 제거한다.

[小考]

百合病은 陰이 不足하여 吐法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 ‘飲食或有美時, 或有不用聞食臭時’를 보고 痰涎壅滯의 實證으로 잘못 판단하고 吐法을 사용하면 脾胃의 陰을 더 상하고 肺와 胃의 和降之氣를 어지럽히게 된다. 陰이 손상될수록 燥熱이 더욱 성해져서 虛煩不安 胃中不和 등의 證이 유발된다.⁷⁾

尤在涇은 鷄子를 五臟을 安定시키고 外邪도 제거하는 약으로 보고 있다.

[原文]

百合鷄子湯方

百合七枚 擘, 鷄子黃一枚

上先煎百合如前法了, 內鷄子黃攪勻, 煎五分, 溫服.

[解釋]

백합계자탕

백합(조갠 것) 7개, 계란 노른자 1개

위의 약에서 백합을 앞의 달이는 법과 같이 먼저 달인 후에 계란 노른자를 고루 저어 절반 정도 되게 달여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原文]

百合病, 不經吐下發汗, 病形如初者, 百合地黃湯主之.

[解釋]

百合病에 토하거나 설사시키거나 땀을 내는 등의 치료법을 아직 쓰지 않았고 病의 형태가 처음과 같다면 百合地黃湯을 쓴다.

[注]

此則百合病正治之法也. 蓋肺主行身之陽, 腎主行身之陰. 百合色白入肺, 而清氣中之熱; 地黃色黑入腎, 而除血中之熱. 氣血既治, 百脈俱清, 雖有邪氣, 亦必自下. 服後大便如漆, 則熱除之驗也. 『外台』云: 大便當出黑沫.

[解釋]

이것은百合病의 正治法이다. 무릇 肺는 맥이 몸의 陽을 운행하는 것을 주관하고 腎은 맥이 몸의 陰을 운행하는 것을 주관한다.百合은 백색이어서 肺에 들어가 氣中の 熱을 淸하고, 地黃은 그 색이 검어 腎에 들어가 血中の 熱을 없애 준다. 氣血이 이미 치료되면 百脈이 모두 淸하게 되어 비록 사기가 있더라도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복용한 다음 그 변이 옷처럼 새까맣게 나오는 것은 열이 이미 풀렸다는 증거이다. 『外台』에서는 “대변은 마땅히 검은 거품이 나와야 한

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40.

다.”라고 하였다.

[小考]

百合地黃湯이 百合病의 正治法 처방이므로, 이로 본다면 尤在涇은 百合病의 原因은 肺의 氣中の 熱과 腎의 血中の 熱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地黃을 益心營 清血熱하는 약으로 보고 있다.⁸⁾

맥이 몸을 운행하는 측면에서 尤在涇은 오장 중 가장 위에 있는 肺가 陽부분과 氣를 담당하고, 오장 중 가장 아래에 있는 腎이 陰부분과 血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황의 引經에 대하여 尤在涇은 백합과 마찬가지로 五行歸類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原文]

百合地黃湯方

百合七枚 擘, 生地黃汁一升

上先煎百合如前法了, 內地黃汁, 煎取一升五合, 溫, 分再服. 中病勿更服. 大便當如漆.

[解釋]

백합지황탕방

백합(조갠 것) 7개, 생지황즙 1되

위의 약 중에서 먼저 백합을 앞의 방법대로 달이고 지황즙을 넣고 달여 1되 5홉을 취하여 따뜻하게 해서 두 번에 나누어 먹는다. 나오면 더 먹지 말아야 한다. 대변은 마땅히 옷처럼 새까맣게 나와야 한다.

[原文]

百合病, 一月不解, 變成渴者, 百合洗方主之.

[解釋]

백합병이 한 달이 되어도 낫지 않고 변하여 갈증이 생기면 百合洗方으로 치료한다.

[注]

病久不解而變成渴, 邪熱留聚在肺也. 單用百合漬水外洗者, 以皮毛爲肺之合, 其氣相通故也. 洗已食煮餅¹¹⁾. 按, 『外台』云: 洗身訖, 食白湯餅, 今餽飩也. 本草粳

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41.

米, 小米^①, 小麥并除熱止渴, 勿以鹹豉者, 恐鹹味耗水而增渴也.

[校勘]

①小米: ‘小米’ 두 글자는 저본에는 없는 것을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⁹⁾

[注釋]

(1)煮餅: 『金匱要略選釋』에서는 살짝 익은 국수라고 하였고¹⁰⁾, 『外台』에서는 ‘白湯餅’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食煮餅’하는 것은 益氣生津·養心除煩하므로 解熱止渴에 도움이 된다.¹¹⁾

[解釋]

병이 오래 풀리지 않고 변하여 갈증이 생긴 것은 邪熱이 머물면서 肺에 모인 것이다. 百合 하나만을 사용하여 물에 담가 그것으로 몸을 씻는 것은 皮毛가 肺의 습으로서 그 氣가 相通하기 때문이다. 다 씻은 다음에 구운 떡을 먹는다. 『外台』에서는 “몸을 다 씻은 다음 白湯餅을 먹는데, 지금의 餽飩(고대의 일종의 물로 삶은 밀가루 음식)이다.”라고 하였다. 本草에서는 粳米(멥쌀), 小米, 小麥(밀)은 모두 除熱止渴한다 하였고, 짠맛이 나는 豆豉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짠맛이 水를 消耗하여 口渴증상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小考]

『心典』 『醫宗金鑑』¹²⁾ 『金匱要略廣注』¹³⁾ 등에서는 百合病이 오래 되어 熱이 肺에 머물러 渴症이 형성되면 百合을 담근 물로 몸을 씻고 煮餅을 먹는다고 하였는데, 현대의 많은 주석서들이¹⁴⁾ 百合地黃湯을 복

9)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510.

10) 曹其旭, 陶漢華 主編. 金匱要略選釋.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5. p.32.

11) 廉龍河. 金匱要略의 형성 및 체계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128.

12) 吳謙 等撰.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 481.

13) 李彥 撰.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30.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30.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30.

용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金匱要略校注』에서는 ‘만약 百合洗方を 단독처방으로 百合病의 變證을 치료한다고 이해한다면 병은 더 심해졌는데 약이 감소된 것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 하였다.¹⁵⁾

[原文]

百合洗方

百合一升，以水一斗，漬之一宿，以洗身。洗已食煮餅，勿以鹽豉也。

[解釋]

백합물로 씻는 방법

물 1말에 백합 1되를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그 물로 몸을 씻는다, 다 씻은 다음에 煮餅을 먹고 짠 메주를 먹지 않는다.

[原文]

百合病，渴不差者，栝樓牡蠣散主之。

[解釋]

백합병에 목이 마른 것이 낫지 않는 자는 과루모려산으로 치료한다.

[注]

病變成渴，與百合洗方而不差者，熱盛而津傷也。栝樓根苦寒，生津止渴，牡蠣鹹寒，引熱下行，不使上燥也。

[解釋]

병이 변하여口渴증상이 생겨 百合洗方으로 치료하였는데 낫지 아니한 것은 열이 盛하여 津液이 상한 것이다. 栝樓根은 苦寒하여 生津止渴하고 牡蠣는 鹹寒하여 열을 아래로 행하게 引導함으로써 위로 하여금 그 열에 消燼되지 않게 한다.

[原文]

栝樓牡蠣散方

栝蒌根 牡蠣^① 等分。

上爲細末，飲服方寸匕，日三服。

李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論治.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0. p. 69

15) 何任 著.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 30-31.

[校勘]

①熬: 趙開美本에서는 煨으로 되어 있다.

[解釋]

과루모려산

과루뿌리. 모려(볶은 것) 각각 같은 양

위의 약을 곱게 갈아 사방 一寸의 숟가락의 양만큼 물에 타서 하루에 3번 먹는다.

[原文]

百合病，變發熱者，百合滑石散主之。

[校勘]

百合病이 변하여 열이 나는 데에는 百合滑石散을 주로 쓴다.

[注]

病變發熱者，邪聚于裏而見于外也。滑石甘寒，能除六腑之熱。得微利，則裏熱除而表熱自退。

[解釋]

병이 변하여 발열하는 것은 邪氣가 속에서 모여 증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滑石은 甘寒하여 六腑의 熱을 解除할 수 있는데 소변이 약간 잘 나오게 되면 속의 열이 사라짐에 따라 表熱도 자연히 내리게 된다.

[原文]

百合滑石散方

百合一兩 炙，滑石三兩。

上爲散，飲服方寸匕，日三服。當微利者，止服，熱則除。

[解釋]

백합활석산방

백합 1냥 구운 것, 활석 3냥

위의 약을 가루 내어 사방 1촌 길이의 숟가락으로 뜸 수 있는 양만큼 물에 타서 하루 3번 먹는다. 소변이 약간 잘 나오게 되면 복용을 중지하니, 열은 즉 제거된 것이다.

[原文]

百合病，見于陰者，以陽法救之；見于陽者，以陰法救之。見陽攻陰，復發其汗，此爲逆；見陰攻陽，乃復下

之, 此亦爲逆.

[解釋]

百合病이 陰에서 나타나면(百合病에 陰證이 보이면) 陽法으로 구하고 陽에서 나타나면(百合病에 陽證이 보이면) 陰法으로 구한다. 陽에서 나타났는데(陽證이 나타났는데) 陰을 공격하고, 그런 다음 다시 그 땀을 내게 한다면, 이는 逆이 되고, 陰에 나타났는데(陰證이 나타났는데) 陽을 공격하고, 그런 다음 다시 下法을 쓴다면, 이도 또한 逆이 된다.

[注]

病見于陰, 甚必及陽; 病見于陽, 窮必歸陰. 以法救之者, 養其陽以救陰之偏, 則陰以平而陽不傷; 補其陰以救陽之過, 則陽以和而陰不歉. 『內經』用陰和陽, 用陽和陰之道也. 若見陽之病而攻其陰, 則并傷其陰矣, 乃復發汗, 是重傷其陽也, 故爲逆; 見陰之病而攻其陽, 則并傷其陽矣, 乃復下之, 是重竭其陰也, 故亦爲逆. 以百合爲邪少虛多之證, 故不可直攻其病, 亦不可誤攻其無病, 如此.

[解釋]

병이 陰에서(陰證이) 나타나서 그것이 심하면 반드시 陽에 미칠 것이고, 병이 陽에서(陽證이) 나타나면 결국 반드시 陰에 미치게 된다. 治法으로 이것을 구해야 하니, 그 陽을 길러 陰의 치우침을 구하면 陰이 평온해져서 陽이 상하지 않게 되고, 그 陰을 보완하여 陽의 過함을 구제하면, 陽이 조화로워져서 陰이 손상되지 않게 된다. 『內經』(『靈樞·五色』)에서 “陰으로 陽을 조화시키고, 陽으로 陰을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리이다. 만약 陽의 병을 보고 그 陰을攻하면 반드시 그 陰을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다시 땀을 내게 한다면 이는 그 陽을 거듭 상하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逆이 되며, 陰의 병을 보고 그 陽을攻하면 반드시 그 陽을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다시 下法을 쓴다면 이는 그 陰을 거듭 고갈시키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또한 逆이 된다. 百合病이 邪氣가 적고 虛가 많은 證이기 때문에 직접 그 병을 공격할 수 없고, 또한 병이 없는 곳을 잘못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小考]

尤在涇은 이 조문에서 『靈樞·五色』의 ‘用陰和陽, 用陽和陰’을 인용하여, 백합병이 虛證이기 때문에 직접 邪氣가 있는 곳을 공격하지 못하고, 부족한 곳을 보충하는 간접적인 補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徐彬 唐宗海는 ‘病見于陰’을 變渴과 ‘病見于陽’을 變發熱로 보았으며, 唐宗海는 變渴에 洗方을 쓰는 것을 陽法救之로 보았고, 變發熱에 滑石散을 쓰는 것을 陰法救之로 보았다.¹⁶⁾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백합병의 病機가 陰虛內熱이므로, 치료는 마땅히 陰의 부족을 補하는 법을 사용하여 陽의 偏盛을 조정해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見于陽者, 以陰法救之’의 의미이며, 陰虛가 심한 자는 陰 중의 陽이 손상을 받아서, 怯寒 神疲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는 마땅히 養陽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見于陰者, 以陽法救之’의 의미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尤在涇이 백합병의 치료원칙을 補法으로 본 것과 그 례를 같이 하는 것이다.

IV. 고찰

1. 病名의 유래

百合이라는 病名 由來에 대하여, 백합이 주로 치료하기 때문이라는 설과 百脈이 모두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과 百合이 방실과도를 의미한다는 설이 있는데, 尤在涇은 이 중에서 百脈이 모두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다.

2. 병의 원인

병의 원인에 대하여 尤在涇은 입이 쓰고 소변 색깔이 붉고 맥이 微數한 증상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로부터 유추하여 熱邪로 보았으나, 근본 원인은 肺의

16) 이윤천 외. 금궤요략 백합호흡음양독병증제삼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3). p. 113.

虛熱로 보았다. 특히 脈이 우리 몸을 운행하는 측면에서, 오장 중 가장 위에 있는 肺가 陽부분과 氣를 담당하고, 오장 중 가장 아래에 있는 腎이 陰부분과 血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백합병의 원인이 肺의 氣中熱과 腎의 血中熱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백합병이 傷寒熱病 전후에 잘 나타난다고 보았다.

3. 예후

尤在涇은 예후에 대하여 원문에서 60일, 40일, 20일 등의 치료시간이 걸린다고 구분한 것을 陰이 모여 熱飲이 풀리는 기간으로 보았다. 즉 소변을 볼 때 머리가 아픈 경우는 열이 심한 것이고, 소변을 볼 때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서 오싹하는 경우에는 열이 덜 심한 경우며,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다만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는 열이 가벼운 것이라고 보았다.

4. 치법

치법에 있어서 尤在涇은 백합병이 邪氣가 적고 虛證이 많기 때문에 직접 邪氣가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陰을 보충함으로써 열을 자연히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5. 약리 설명방법

尤在涇은 백합이 흰색이기 때문에 肺에 작용하며, 지황이 검은 색이기 때문에 腎에 작용한다고 하여, 五行歸類의 설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 인용문헌

尤在涇은 백합활석대자탕의 설명에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在下者引而竭之’의 조문을 인용하였고, 치법을 설명하면서 『靈樞·五色』의 ‘用陰和陽, 用陽和陰’을 인용하여 補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백합지황탕을 써서 熱邪가 빠져나오는 증거로 대변을 검게 보아야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外臺秘要』를 인용하였고, 百合洗方에서 온 몸을 씻고

나서 먹는 煮餅을 설명하면서 『外臺秘要』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尤在涇은 백합병에 주석을 달면서 주로 『內經』과 『外臺秘要』를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金匱要略心典』의 百合病 조문에 나타난 尤在涇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尤在涇은 병명유래에 대하여 모든 맥이 병이 들어 생긴다고 보았고, 원인은 肺의 陰이 부족하여 虛熱이 肺의 氣中和 腎의 血中에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예후는 열의 정도가 심할수록 나쁘다고 보았고, 치법은 邪氣가 적고 虛證이 많으므로, 補法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약물의 약리작용을 설명하면서 五行歸類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고, 인용문헌은 주로 『內經』 『外臺秘要』이다.

참고문헌

<논문>

1. 廉龍河. 금궤요략의 형성 및 체계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2. 이운천, 고승욱, 서대선, 김명수, 정현영. 금궤요략 백합호흡음양독병증제삼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3).

<단행본>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4.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5. 曹其旭, 陶漢華 主編. 金匱要略選釋.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5.
6. 吳謙 等撰.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7. 李彤 撰.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8. 李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論治.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0.
9. 何任 著.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